다산포럼

빨갱이 장사는 제발 이제 그만

김 정 남
언 론 인

자유한국당 7·3전당 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 지사가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운동권 정부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고 한 데 대해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언제까지 빨갱이 장사를 해서 보수의 수명을 연장할 거냐? 한물간 종북 몰이 카드는 그만두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중앙일보 6월 20일 자)

이제 막 출범한 정부를 향해 협력은커녕 저주에 가까운 저질 색깔 공세와 종북 몰이를 보면 하는 것을 보면 오만 정이 다 떨어진다. 하기는 얼마 전 그가 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도 자신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문재인 후보를 좌경 종북으로 모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당의 표밭이라 할 서울의 강남 3구에서조차 철저히 외면당함으로써 더 이상 종북 몰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을 상대로 종북 몰이를 계속하고 있는 행태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또 슬프게 한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고질적인 폐단을 적폐라고 한다면, 정부 수립 이래 보수 세력에 의해 시도 때도 없이 자행되어 온 종북 몰이 빨갱이 장사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요, 시급히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악성의 적폐라고 말할 수 있다. 이승만의 백색 독재와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치' 문화 아래서 집권 세력이 그 비판 세력 탄압에 전가의 보도로 활용한 수단이 좌경 용공 조작과 음해였음을 우리는 지겹도록 경험해 왔다. 정치적 위기에 몰릴 때마다 집권 세력은 간첩 사건을 조작 발표하거나 학생운동을 비롯한 반대 세력을 용공 좌경으로 몰아 탄압해 왔다.

북쪽의 세습 독재 권력과 남쪽의 군사 독재 권력이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같은 조작 간첩 사건으로 죽어갔던가. 이 같은 편 가르기 식 용공 몰이는 국가 공동체 내부를 분열시켜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염원마저 움츠러들게 하는 망국적 자해 행위에 다름 아니었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생전 내내는 물론,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아픈 상처가 되었다.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열등감과 좌절감 때문에 사회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러저러한 좌경 책을 읽으면서 북한 또는 국외 공산 계열의 노선에 동조하는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공소장이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만들어졌다. 정치권력의 이러한 용공 조작 수법에 대해 1975년 김지하는 그의 옥중 양심선언에서 "어제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닌 이 지긋지긋한 반공법 제4조의 상투적, 견강부회적, 무차별적, 모략적 적용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신적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질곡이며, 우리 민중으로부터 말의 자유를 빼앗아 숨 막히는 암흑과 침묵의 문화를 보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부패 특권의 압제 권력을 유지해 온 최대 억압의 무기이다. 나는 이에 대하여 자유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 떨리는 분노로 항의한다. 나는 나에게 들씌워진 이 더러운 질곡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썼다.

박정희 정권 때는 최종길 교수를 고문치사 시킨 뒤 간첩으로 조작 발표하고, 1975년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여 8명을 사형대에 올렸던 중앙정보부가, 전두환 5공 군부정권 때는 박종철 군을 물고문으로 죽인 저 유명한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용공 조작의 본산이자 지휘부였다. 보안사령부는 재일교포간첩단 사건을 수시로 조작 발표하였다. 1980년대 초반 이른바 국보시대(반정부 사범을 국가보안법으로 규율 하던 시대)에는 서울에서 학림사건(전민노련사건), 부산에서 부림사건, 대전에서 아람회·한울회 사건, 공주에서 금강회 사건, 전주에서 오송회 사건 등 비슷한 형태의 용공 조작 사건이 고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사건을 만들어 용공 조작을 하는 수사기관 사람들에게는 1계급 특진의 혜택과 훈장과 표창이 주어졌으며, 검찰과 법원은 다만 이들 조작 사건들을 확인, 추인해 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형식적이지만 증거가 있어야 했다. 표적이 된 사람의 집을 기습적으로 수색,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서적을 압수하여 증거로 삼았다. 이렇게 압수된 책을 불온서적이라고 감정해 주는 맞춤 연구소와 전문 감정인도 있었다. 일본 육군성의 첩자 양성 학교인 나가노(中野) 출신에 홍지영·홍성문 등 다섯 가지 이름을 번갈아 쓰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빨갱이를 이렇게 만들어 냈다.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또 전향 공작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부터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향서를 쓸 수 없다고 거부하면, 사회안전법에 의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징역을 살아야 했다. 서준식은 7년 징역을 마치고도 10년을 더 보안감호 처분으로 감옥에 있었고, 강용주는 전향 거부 투쟁 속에 14년의 징역을 살고 나와서도 18년을 보안관찰처분 대상으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 용공 조작의 피해는 이렇듯 일생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한 인간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

이제 제발, 지긋지긋한 종북 몰이, 빨갱이 장사는 걷어치우자. 우리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그 아프고 슬픈 상처를 더 이상 만들지 말자.

청춘 톡·톡

광주시의 '착한 일자리 지원사업'

김 성 태
휴이컴퍼니 대표

우리 회사는 지난해 광주시 '광주청년센터 the 숲'의 '청년일자리 발굴 사업'에 선정됐었다. 통상 6~9개월 정도 인건비의 50%를 지원해주는 다른 사업과 다르게 5월부터 12월까지 145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해줬다. 여기에 다음해에도 인건비의 70%를 추가로 지원한다.

덕분에 당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다. 그 직원은 회사의 '보물'이 돼 본인의 역할과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올해도 '광주청년드림사업'에 선정돼 또 다른 직원을 채용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회사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이 됐다.

현재 청년창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력'을 꼽을 수 있겠다. 창업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구성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꼬박꼬박 지출되는 인건비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수입도 안정되지 않아 그 불안감에 쉽사리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당연히 창업자 개인에게 과중한 업무가 따르고, 자칫 '창업 아이템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동안 대다수 인건비 지원사업은 단 몇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만 혜택이 주어졌다. 그 지원이 끝난 뒤 채용을 유지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업무를 익힐 수 있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대표의 뜻과 큰 그림을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면서 효과를 보인다. 이때부터 그 직원은 한 사람의 몫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직원이 한 사람의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때 기업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게 된다. 그러나 6개월~9개월간 인건비 50% 지원이라는 단발적인 지원으로는 추가 인력채용은 물론, 채용한 직원마저 해고해야 하는 처지를 두고 고민에 빠지는 게 스타트업의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광주시의 인건비 지원사업은 그야말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원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대표자의 '자질'이다. 인건비를 아껴 대표의 몫을 늘릴 것인지, 지원받은 인건비를 활용해 회사에 도움되는 직원을 만들지는 전적으로 대표의 결정에 달려있다.

많은 창업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직원은 돈만 많이 주면 좋아할 것이다.' 실상은 다르다. 1년 만에 대기업을 그만둔 청년들. 첫 직장을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은 수많은 재취업자들은 한결같이 "회사 선택의 1순위가 돈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다.

우리가 돈을 벌고, 원하는 건 결국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다. 단지 돈만을 많이 버는 게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퇴근 후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라면 적은 급여라 할지라도 좋은 직원들이 찾아오게 된다.

언젠가 모회사의 대표가 나에게 한 말이 있다. "넌 마치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 사업하는 사람 같아. 직원들 월급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나봐." 그가 뱉은 말 속에는 회사 수익이 올라가면 나와 회사의 이익보다 직원들의 급여, 복지를 더 신경 쓰던 나에 대한 '핀잔'이 섞여 있었다.

그렇다. 난 지금 당장 내 개인의 이득보다 직원들 월급을 챙겨줄 정도로만 회사를 운영하면 된다고 본다. 대표는 직원을 성장시키고, 그 직원은 이후 회사를 성장시킨다. 지금 당장 회사의 수익, 대표 개인의 이득만 좇아서는 결코 큰 성과를 이룰 수 없다. 직원들이 행복하고, 일하고 싶고, 자신이 낸 성과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온다. IT기업, 스타트업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 눈 앞의 작은 이익보다 추후 이 직원들이 더 크게 키워낸 '과실'을 챙길 생각이다.

광주시의 인건비 지원사업은 나의 꿈과 직원들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착한 사업'이다. 혹여, 이 좋은 사업을 지원받아 대표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기업은 대표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 청춘들의 목표와 꿈이 모여있는 곳이다. 회사에서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목표와 꿈을 지켜주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대표의 몫이다."

기 고

우병우, 아이히만, 그리고 인사청문회

김 대 현
위민연구원 원장

미국 사회심리학자인 스탠리 밀 그램은 1961년 자신이 근무하는 예일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을 하였다. 실험자들에게는 단순히 기억력에 관한 실험이라고 하고 교사와 학생으로 역할을 나눈다. 교사는 학생이 문제가 틀릴 때 마다 전압을 올려 전기충격을 가하는 실험이다. 전압은 15v~450v까지 30단계를 두고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단계를 올려간다. 물론 전압의 전기는 교사에게는 비밀이었지만 실제로는 흐르지 않았고 학생에게는 실제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운 연기를 하게 한다.

마지막 전압 450v를 남겨두고 주최 측은 실험자에게 설명을 한다.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학생실험자가 죽을 수 있는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교사에게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버튼을 누르라고 한다. 실험이 끝나고 주최 측도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실험 전에는 450v까지 누를 사람이 0.1%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결과는 65%의 실험자가 인간이 죽을 수 있는 450v의 전압까지 올린 것이다. 이 실험은 많은 사람이 권력의 권위에 순응하는 모습 즉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스탠리 밀 그램은 왜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지 알고 싶었다고 한다.

히틀러 치하 독일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과 생체실험, 심지어 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 27만 명을 학살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 학살 전범으로 수배를 받았고 15년을 숨어 지내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당시 미국 뉴요커 잡지의 특파원이었던 한나 아렌트는 이 재판 과정을 취재한 후 재판과정을 다룬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집필한다.

그리고 그 책 속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아이히만이 체포되었을 당시 많은 사람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잔악한 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 아이히만이 악마처럼 생겼을 거라 상상했지만 막상 아이히만을 보니 그냥 평범한 보통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탄핵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다시 최근 두 달 만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공직자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한다. 아이히만이나, 우병우, 전기충격 실험자 이들의 공통점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은 그저 직무에 충실하고 명령권자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며 잘못이 없음을 주장한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내정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일부 몇몇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협치는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후보자들의 부적격이 장관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의 수행능력, 그리고 정책적 대안이 있느냐의 전문성보다 후보자의 도덕성에만 집중하고 있다. 물론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고 그게 야당의 본연의 임무이다.

야당은 도덕성보다 먼저 후보자들의 과거 공직자 생활에서의 직무평가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의 인터뷰 등 후보자들의 내면을 들여 다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 발목 잡기로 일관해왔다. 오죽했으면 저잣거리에서나 나올 법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겠는가.

필자는 참여정부 당시 진보가 도덕성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다. 국민은 고달픈 현실을 인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정치권은 민생의 본질은 외면하고 지엽적인 문제나 각 당의 당파성을 띤 이전투구를 벌여 국민과의 괴리를 가져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현재의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해서는 도덕성만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 합리적인 의심과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정국 현안을 주도할 만한 의제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 국민은 누가 장관이 되는 것보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더 관심이 많다. 또한, 도덕성보다 무능한 정권이나 악마 같은 지도자의 탄생을 더 염려하고 있다. 그게 현재의 민심이다. 정치는 민심의 바로미터에서 출발해야 한다.

社 說

자치단체 청년정책도 일자리 창출이 관건

'삼포세대' 'N포세대' 등의 신조어를 탄생시킨 우리 사회의 청년들.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붙여진 청년세대의 별칭이다.

민선6기 후반기에 접어든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의 중심에 청년들을 두고 있다. 이들의 일자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청년세대를 끌어안지 않으면 광주·전남의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다는 절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하지만 청년층이 원하는 '질 높은 일자리'는 민·관의 관심과 지원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이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4년 9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한 광주시는 지역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취업과 창업 등 생활안정 지원 제도를 추진 중이다. 또한 광주시는 경제·복지·문화 등 총 6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본예산만 563억 원이다. 이들 정책은 청년 단체 의견 수렴과 각 부서별 협업, 청년정책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행 계획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게 특징이다.

민선6기의 핵심 과제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선정한 전남도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15년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청년발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청년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물론 정책과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건 지자체의 의무다. 하지만 미취업 청년들이 말하는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생산·투자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청년정책 마련과 동시에 지역 출신이란 이유로 기업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스터피자 사태' 가맹점 갑질 근절 계기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유통업계 오너들이 사퇴했다.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은 잡화브랜드 MCM의 생산·판매법인인 성주디앤디의 공동대표직에서 최근 사임했다. 앞서 일부 협력업체들은 이 회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협력업체들이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 성주디앤디 측이 부당한 단가를 적용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반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갑질 논란'으로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인 MP그룹 정우현 회장 역시 어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가맹점에 중간유통사의 비싼 치즈를 강요한 뒤 막대한 통행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은 '치즈 통행세' 뿐만 아니라 '보복 영업' 등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이 경쟁 브랜드로 갈아타자 근처에 직영점을 내는 방식으로 보복을 했다는 의혹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경비원을 폭행해 사과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갑질 논란 오너들이 사퇴한 것은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추가적인 이미지 추락을 막고, 오너 당사자에 대한 직접조사나 매출 타격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사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의 횡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수사와 불법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공정위와 검찰의 이번 수사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고질병인 '갑질'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약자를 괴롭혀 배를 채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을 어긴 자는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부터 영업 관행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불합리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

無 等 鼓

도마뱀 기우제

가뭄이 심해지면 옛사람들은 어떻게 비(雨)를 빌었을까? '조선왕조실록'에 기우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은 화룡(畵龍) 기우제, 토룡(土龍) 기우제, 석척 기우제 등이다. 이 세 가지 기우제 모두 용의 응험(應驗)을 빌리려 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화룡 기우제'는 용 그림을 그려 놓고 제문을 지어 비를 빌었다. 기우제를 지낸 뒤 비가 오면 사흘 후에 보사제(報祀祭)를 지내고 용 그림을 물속에 던져 넣었다. 토룡은 지렁이가 아니라 흙으로 빚은 용을 의미한다. '토룡 기우제'는 한양성 5곳(동·서·남·북·중앙)에 제단을 세운 뒤 흙으로 만든 용을 두고 비가 내리길 빌었다. 간지에 따라 청룡, 적룡, 황룡, 백룡, 흑룡을 달리 만들었다. 또 청룡에는 소동(小童)들이 춤추고, 적룡과 황룡에는 장자(壯者)가 춤추며, 백룡과 흑룡에는 노인(老人)이 춤추었다.

이색적인 것은 '석척 기우제'이다. 태종은 가뭄이 심하자 신하 김여지에게 이른다. "하늘에서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석척으로 기우(祈雨)함이 어떻겠는가?" "기다리기를 심히 한 뒤에 기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1413년 태종 13년 4월 9일 기사) 신하는 좀 더 비를 기다려 보자고 답한다. 석척은 도마뱀을 일컫는 한자어이다.

석척 기우제는 어떻게 지냈을까? 우선 도마뱀 열두어 마리를 잡아서 항아리 속에 넣은 후 물을 담고 나뭇잎을 띄운다. 그리고 동남(童男) 수십 명을 선발해 푸른 옷을 입히고 얼굴과 손발에도 푸른 물감을 칠한 다음 버드나무 가지를 쥐고 밤낮으로 항아리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빌도록 했다. "도마뱀아, 도마뱀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뿜어내라. 비가 좍좍 쏟아지면 너희를 보내 주마."(1540년 중종 35년 5월 10일 기사)

석척 기우제는 한강을 비롯해 경회루와 모화관 연못 등지에서 행해졌다. 동원된 어린아이들은 20명에서 60명까지 그때마다 조금씩 달랐다.

가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몇몇 지역에서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1세기에도 가뭄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